

전남지부를

찾아서

○ 소재지 : 광주시 북구 유동 109-9

전 화 : 54 - 2409 / 56 - 9465

○ 지부장 : 김 병 우 ○ 사무국장 : 오 준 식

1966년 3월 27일에 설립된 전남지부는 전남지방 산업장의 보건관리자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산하의 산업보건센타를 통하여 산업보건사업을 전개하여 왔다.

또한 1975년도에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과, 1976년도에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과 제휴를 맺고, 산업보건사업의 개척에 대학의 학술적인 지원을 받아오고 있다.

특히 1975년도부터 작업환경조사측정에 많은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각 산업장의 작업환경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왔으며, 1981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근로자 건강진단자료의 전산 처리에 착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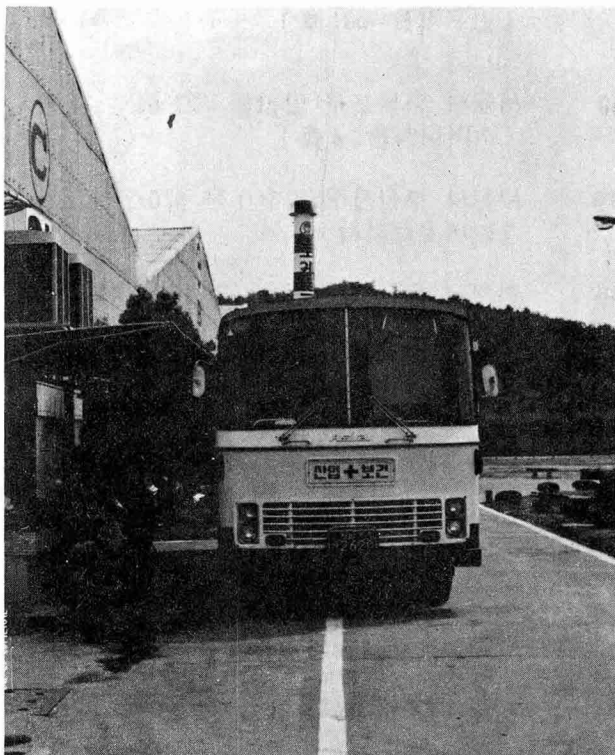
그 이듬해인 1982년에 건강진단의 소견에 대한 1차 스크리닝의 선별판정을 전산자동화함에 성공하였으며 그 자료를 산업장별 보건관리에 편리하게 정리 인쇄하여 산업체에 제공해오고 있어서 집단건강관리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



(갱내에서의 유해가스 측정관경)

1982 년도부터는 대형검진차량을 운행함으로써 근로자 건강진단의 능률과 신뢰성을 높임과 동시에 수진자에게는 근로자로서의 긍지를 심어 주고 있다.

지부산하의 광주산업보건센터는 1983 년도부터 전 남북지방의 특수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오늘도 광활한 지역을 분주하게 오가며 산업보건사업의 질적향상에 계속 노력하고 있다.



(산업장에서
의
검진관경)

'84 주 요 사 업 실 적

'84.10.31 현재

사 업 명	계 획	실 적	진 도	비 교
작 업 환 경 측 정	300	339	113 %	사 업 장
근 로 자 건 강 진 단				명
일 반 검 진	32,000	25,314	79 %	
특 수 검 진	11,000	10,770	98 %	
채 용 건 진	3,500	4,050	116 %	
정 밀 검 사	660	1,963	297 %	
회 원 확 보				
정 회 원		65		
준 회 원		61		